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8. 4(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p>① 이철우 도지사, 발로 뛰며 국가투자예산 확보한다! 세종에서 내년도 국비사업 추진상황 점검, 문제 해소방안 논의 기재부 방문해 포항지진피해, 물류기반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설명</p>	예산담당관	
<p>② 쉬어가는 길 아름다운 경북구곡길을 같이 걸어요 라디오생방송해설과 함께하는 경북구곡 탐방 참가자 8.4일부터 모집 8.22일 안동 하회구곡 시작으로, 10.31일 영주 죽계구곡까지 6회 진행</p>	산림산업 관광과	
<p>③ ‘대한민국연극제’ 내년에는 경북(안동·예천)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연극제 안동·예천 유치 확정... 유명 연극공연 한자리에 내년 6.18~7.11 도청신도시, 안동, 예천에서 연극공연, 부대프로그램 실시</p>	문화예술과	
<p>④ 도서관에서 찾은 삶의 지혜! ‘경북도서관 지혜학교’ 운영 경북대 송진우 교수와 함께 인문학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8월 5일부터 수강생 모집, ‘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12주간 운영</p>	경북도서관	
<p>⑤ 동해연안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분리... 주의 요구 보건환경연구원, 동해연안 해하수 중 비브리오패혈증균 분포조사에서 첫 분리 어패류 관라조리 등 주의 당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p>	보건환경 연구원	
<p>⑥ 경북소방본부, 소방차량 조작능력 교육으로 현장대응능력 높인다 신규 차량담당자 76명 대상 소방차량 안전장치, 비상시 응급 펌프 모형과 분말소화장치를 자체 제작해 작동원리 교육 효과 극대화</p>	소방본부	
<p>★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참석</p>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8. 4(목)】	담당부서	지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자	과장	서정찬			
			팀장	지진태	주무관	심화중	
연락처	054-880-2167						

이철우 도지사, 발로 뛰며 국가투자예산 확보한다!

- 세종에서 내년도 국비사업 추진상황 점검, 문제 해소방안 논의 -
- 기재부 방문해 포항지진피해, 물류기반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설명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4일 세종사무소에서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추진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실무진들을 일일이 찾아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가투자예산 점검 화상회의에서 실·국별 국비활동 상황을 강하게 독려하고,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차례로 찾아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투자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난해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 중 피해금액의 70%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주택수리 등 유형별 지원한도(최대 1억2천만원)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200억원 등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물류 기반

시설 확충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우선 △중양선 복선전철화사업 5500억원 등 철도계획 3개 노선 3조3049억원과 북구미IC에서 군위IC 등 고속도로 계획 5개 노선 3조9250억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비 209억원을 요청하고,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으로 묶여 있는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을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지역산업의 물류망 개선을 위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150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5000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200억원을 설명했다.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분야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590억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533억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60억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23억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원을 요청했다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서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고용환경예산과에는 △국립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사업 10억원을, 정보통신과에는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52억원을, 문화예산과는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 3억원을, 연금보건과에는 청도군 보건소 청사 이전 10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재정관리국에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중양선복선전철화 사업 추진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통합신공
항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추진되는 만큼 지역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라고 강조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
라” 고 간부들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실무진에게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합리적 당위성과 지역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사진 방문후 송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8. 4(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관광과			
		작성 자	과 장	김 말 술		
			팀 장	전미향	주무관	박정아
		연 락 처	054-880-3624			

쉬어가는 길 ● 아름다운 경북구곡길을 같이 걸어요

- 라디오생방송해설과 함께하는 경북구곡 탐방 참가자 8.4일부터 모집 -
- 8.22일 안동 하회구곡 시작으로, 10.31일 영주 죽계구곡까지 6회 진행 -

경상북도에서는 8월 4일 부터 ‘경북구곡 걷기 라디엔티어링*’ 참가자를 모집한다.

* 라이엔티어링 :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퀴즈 형식으로 전달되는 통과 지점을 찾아가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걷기 운동

구곡(九曲)은 아홉 굽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깊은 산속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학문을 닦기 시작하면서 구곡문화가 유래했으며, 경북도에는 도산구곡, 선유구곡 등 43개소의 구곡이 남아있어 전국 150여개 구곡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경북구곡 걷기 라디엔티어링’ 은 8월 22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풍광이 뛰어나고 옛 선현들의 발자취가 묻은 경북구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백두대간 지역의 대표 5개 구곡에서 6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8월 22일 안동 하회구곡을 시작으로, △9월 19일에는 성주 무흘구곡 (1~5곡), △9월 26일에는 문경 선유구곡, △10월 17일에는 상주 용유구곡, △10월 24일에는 김천 무흘구곡(6~9곡), △10월 31일에는 영주 죽계구곡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 매회 99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올해의 주제는 ‘화양연화(花陽蓮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로 정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숲에서 치유하고 쉬어갈 수 있는 쉼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합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쉽표(九→9→9)를 개발하고 각 구곡에 어울리는 하위테마와 슬로건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생방송 라디오 해설과 안내를 따라 구곡숲길을 걸으며 구곡관련 퀴즈풀이, 아름다운 구곡을 배경으로 한 사진 콘테스트, 현장참가자의 인터뷰, 버스킹 공연 등 각 지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도착지점까지 걷게 된다.

또한, 이번 행사와 연계해 8월 19일에는 ‘구곡길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지역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구곡스포터즈단을 활용한 SNS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사참가는 구곡걸기를 희망하는 전 국민 누구나 세계유교문화재단 (054-851-7182) 전화접수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 (<http://www.worldcf.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경북구곡 걷기 행사를 통해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숲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국에서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경북의 숲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8. 4(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 자	과 장	정 창 명		
			팀 장	배진태	주무관	김철중
연락처	054-880-3123					

‘대한민국연극제’ 내년에는 경북(안동·예천)에서 열린다

-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안동·예천 유치 확정, 유명 연극·공연 한자리에 -
- 내년 6.18~7.11 도청신도시, 안동, 예천에서 연극공연, 부대프로그램 실시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로 안동시와 예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연극제는 매년 전국 시도 대표 극단들이 대통령상을 두고 경연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로, 도민들이 국내·외 유명 연극과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대회는 경북도(안동시, 예천군), 경남도(밀양시), 제주도 등 6개 시·도가 신청,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개최지로 경북(안동, 예천)이 확정되었으며 (사)한국연극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총사업비 21억원(국비 7, 도비 6, 시군비 8)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1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23일간 도청 동라관, 안동예술의전당, 예천 시민회관 및 도청 신도시 야외 공연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17개 시·도의 연극 경연과 함께 국내외 초청공연, 유명배우와 함께하는 스타데이트, 학술행사, 연극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60여 편의 공연으로 연극의 향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참가 연극인이 15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북의 문화와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연극인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북도내 예술인들의

전국 무대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도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8. 4(목)】	담당부서	경북도서관				
		작성자	관 장	김진창			
			팀 장	신광현	주무관	권춘미	
연락처	054-650-3921						

도서관에서 찾은 삶의 지혜! '경북도서관 지혜학교' 운영

- 경북대 송진우 교수와 함께 인문학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
- 8월 5일부터 수강생 모집, '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12주간 운영 -

경북도서관(관장 김진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8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주간 '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고령화 시대에 고학력 은퇴 인력의 증가로 질 높은 인문교양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문활동을 지원하고 인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서관에서는 심화인문에 열의가 있는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gb.go.kr>)를 통해 신청·접수 받아 선착순으로 20명의 교육인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도서관 지혜학교'는 경북대학교 송진수 교수와 함께 8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 부제 - 문학은 읽는다는 것은 정신을 위로·치유한다는 것'을 주제로 강독, 쌍방향 토론수업을 진행하며,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셰익스피어의 햄릿, 영화 뷰티풀 마인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되며,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등록부 관리, 발열체크,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시행한다.

김진창 경북도서관장은 “기존의 인문학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심화된 도서관 지혜학교를 통해 신중년 세대의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해 줄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g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경북도서관(054-650-3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8. 4(목)】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작성자	부장	정광현			
			과장	문성일	주무관	김규옥	
		연락처	054-339-8231				

동해연안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분리... 주의 요구

- 보건환경연구원, 동해연안 해·하수 중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에서 첫 분리 -
- 어패류 관리·조리 등 주의 당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20일 포항 형산강에서 올 여름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고 밝히며, 어패류 익혀먹기와 위생적 조리하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주의 등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환자발생에 각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연구원에서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4개 시·군 15개 지점의 해수, 기수 및 하수를 대상으로 ‘동해연안 해·하수 중의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장염비브리오 3종(*V. cholerae*, *V. vulnificus*, *V. parahaemolyticus*)과 기타 병원성 비브리오균 및 환경인자(수온, 염도, 기온, pH)이다.

7월말까지 채수된 180건의 해·하수 중, *V. cholerae* non-O1 1건, *V. vulnificus* 1건, *V. parahaemolyticus* 35건, 그 외 기타 병원성 비브리오균 16건을 분리·동정해 분리율은 29%로 나타났다.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증 중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 (*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주로 감염되며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 중독자, 면역결핍환자 등의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증상으로는 급성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있고, 발열

후 24시간 내에 주로 하지에서 발진, 부종으로 시작해 물집이 생기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악화되며, 사람 간 직접 전파 되지는 않는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며, 접촉 시 노출 부위를 충분히 수돗물로 씻어주어야 한다. 특히,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저장하고, 85℃ 이상 가열 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하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한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을 위해 자체 감시망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없음>

참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8. 4(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 자	과 장	이진우			
			소방령	운영식	소방교	양육규	
		연락처	054-880-6264				

경북소방본부, 소방차량 조작능력 교육으로 현장대응능력 높인다

- 신규 차량담당자 76명 대상 소방차량 안전장치, 비상시 응급 -
- 펌프 모형과 분말소화장치를 자체 제작해 작동원리 교육 효과 극대화 -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119종합정비센터에서 신규 차량 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조작능력 숙달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년 경력의 소방차량 정비 기술력을 갖춘 119종합정비센터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소방자동차 공압*/전기 및 PTO* 작동원리 △사다리차 유압시스템 △각종 안전장치 등의 이론교육 △차량 수동 조작 방법 및 비상시 응급처치 방법 실습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공압(空壓) : 압축공기를 이용한 작동장치

*PTO(Power Take Off) : 소방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동력인출장치.

특히, 펌프·화학차 교육에는 119종합정비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전기장치 교육용 시뮬레이터와 분말 소화장치를 활용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차량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차량 담당자들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소방차량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상시 가동상태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119종합정비센터는 정기 인사이동 시 신규 소방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18년부터 매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다.

<사진별첨>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 5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한다.